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판도 바꾸는 게임 체인저
- WSJ: 미국인 저축 점차 줄어... 그러나 지출 내년까지 계속 된다
- WSJ: 스트레스에 지친 미국인들, X마스 선물 덜 사고 자선단체 기부도 줄인다.

[미국 금융]

- WSJ: 미 회계 법인들의 품질 관리에 대해 감독 강화된다
- 모건 스탠리 에쿼티 전략: Feedback on Our Tactical Views and 2023 Outlook 미 주식 기술적인 경해야 내년도 전망

[물류]

- WSJ: 미 철도 노조간에 근로 계약서의 의견 양분

[에너지/오일]

- NYT: 유가 하락....투자자들 에너지 수요 둔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무디스 수석 "내년 경기 침체 확률 50%...연준 연착륙할 수도"
- 한경: 모간스탠리 "美 빅테크 대규모 감원, 시장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 희박"
- 연합뉴스: 실적 부진 디즈니, CEO 전격 교체...'15년 장수' 밥 아이거 복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재택근무 수용하는 아시아 국가들... 재택 근무 입장은 지역마다 달라
- Bloomberg: 고물가 불구하고, 미 회사들이 고객에 프리미엄 상품 판매 유도
- CNBC: 인플레이 강타에 체인점과 개인 식당 대응효과 달라
- CNN Business: 대만 TSMC, 애리조나에 최첨단 칩 생산 계획
- WSJ: 캘리포니아 주, 독성물질 함유 제품 판매로 3M과 Dupont 고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s Aggressive Rate Hikes Are a Game Changer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판도 바꾸는 게임 체인저

- 요약: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경제에 작용한다.
- 연준이 경제와 물가를 둔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금융 정책은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효과에 힘들게 대응하고 있다.
-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금융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둘 때만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연준은 현재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비점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 통제에 필요한 수준보다도 경제를 더 심한 침체로 만든다.

- 자본 시장은 연준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고, 금리 인상으로 채권과 은행 예금이 더 매력적인 반면에, 경제와 기업 수익은 약화되고 있다.

[주택 시장은 금리 조치를 미리 내다본다]

-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을 힘들게 했다. 과거 25년간 모기지율 변동은 연준 금리 인상을 미리 예상하고 발생했다. 연준은 금리를 올해 3월 까지 올리지 않았지만 모기지율은 전년도 2021년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 역사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이후 2년내에 주택 시장은 하락한다. 신규 주택 건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 24% 떨어졌다.
-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건설 감소는 바닥을 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노동 시장]

- 연준은 임금/물가 상호 상승세가 사라질때 비로서 금리 인상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을때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침체가 발생한다.
- 역사적으로 첫 상승세가 있고난 후에는 수년간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리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오를때만 인플레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이 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예컨대 미 핵심 물가 지수 하락이 올해 9월과 10월 사이에 떨어지고, 9월에 정점이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첫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 고점 사이의 기간은 어떠한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인플레이가 꺾이면 침체가 동반되는데 최근 미국 경제는 실업률도 낮은 상태 등 경제가 견조한 편이다.
- 따라서 경제가 침체를 피할지는 인플레이 하락세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에 크게 달려 있다.

WSJ 기사

WSJ: As Savings Slowly Shrink, Consumer Spending Is on Borrowed Time

미국인 저축 점차 줄어... 그러나 지출 내년까지 계속 된다

- 미국 경제 관련 1조7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질문이다. 팬데믹 기간 중 연방 부양책과 소비를 못한 이유 등으로 모은 이 같은 규모의 미국인 저축액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비될 것인가?
- 정답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일 것이라는 것.
- 미국인들은 이 같은 대규모 저축액으로 빛도 갚고, 가전 제품과 가구 등 새로운 제품도 사고 여행도 갔다. 이 같은 강력한 수요를 따라 업체들은 소매가도 올리고 고용도 늘렸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3분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이 여전히 '초과 저축'으로 1조2천억불이나 1조8천억불이 갖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초과 저축'이란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평소에 모아두었을 저축 이상의 금액 수준을 말한다.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미국인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8.8% 정도 저축했는데 정부 부양금, 실업 수당 등으로 2020년에는 16.8%, 지난해에는 11.8%로 줄었다 올해 들어 당연히 더 줄어 7개월 연속 기간동안 4% 미만이었다가 9월엔 3.1%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한마디로 소비는 늘고 매월 저축은 평상시보다 줄고 있다. 인플레이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
- 그러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해 소비자들이 실업률 상승과 해고 우려가 생길때까지는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설문 답변에 따르면 업체들은 내년 2, 3분기가 지나야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WSJ: Stressed-Out Americans Plan to Buy Fewer Christmas Gifts, Donate Less to Charity

스트레스에 지친 미국인들, X마스 선물 덜 사고 자선단체 기수보 줄일 계획

- 가계, 소매업체, 자선단체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끼면서 냉혹한 홀리데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체들은 선물용 지출, 자선 단체 기부, 홀리데이 이벤트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해서 매년 11월과 12월 매출과 기부 규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의 연말이 망쳐질 위험성이 있다.
- 전 세상을 돕기 위해 매년 2억달러 규모의 약과 공급품, 현금을 받고 있는 메디컬 지원 비영리 단체인 Direct Relief의 CEO는 “우리는 왕성한 기부 시즌이 되길 희망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지난 2020년에 이주해 왔을 때 2 베드룸 월세가 \$1,365 하던 것이 올 봄엔 \$2,600로 뛰었다고 미국 웰빙 블로거인 Opal Holt-Philip이 말했다.
- 그녀는 집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써는 압박감이 더 늘어났는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 한개만 정하라”고 말한 것. 그리고 그녀와 남편도 올해는 서로에게 선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동의했다.

- 딜로이트가 올해 9월에 5천명을 홀리데이 시즌 쇼핑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지난해 평균 16개의 선물을 샀으나 올해는 평균 9개만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구당 선물 지출비는 지난해 \$1,463에서 올해는 \$1,455로 예상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쇼핑 시간도 줄이겠다고 답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U.S. Audit Watchdog Looks to Strengthen Rules on Quality Controls

미 회계 법인들의 품질 관리에 대해 감독 강화된다

- 미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오늘 금요일 아래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회사들이 그들의 감사업무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조치를 관리하는 룬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다.
- PCAOB는 회사들이 그러한 통제조치들이 표준 절차에 부합하도록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들이 해야 하는 것은, 1) 성과 메트릭을 정확하게 계산해 유지하는 것, 그리고 2) 그러한 위험성을 해결하려는 설계 절차와 같은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달성하는 것과 연관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들이 이러한 정책들과 절차가 잘 작동하는지 PCAOB와 고객의 감사위원회에 매년 보고토록 하고 있다.

WSJ 기사

모건 스탠리 에쿼티 전략: Feedback on Our Tactical Views and 2023 Outlook

- We still expect higher highs for this tactical rally before the deteriorating fundamentals take us to lower bear market lows next year.
- Our tactically bullish call was always more about the technicals than the fundamentals.
- Feedback on our call for the S&P 500 to reach a price trough of 3,000-3,300 in Q1 '23...we've gotten a fair amount of pushback on that our forecast on this front is too aggressive both from a magnitude and timing standpoint.

모건 스탠리 원문 참조

[물류]

WSJ: Railroad Unions Split Over Labor Contract**미 철도 노조간에 근로 계약서의 의견 양분**

- 노조원들은 근로 계약서에 거부한 반면에 엔지니어 노조원들은 이를 비준했다.
- 백악관이 조정한 새로운 근로 계약안에 대해 컨덕터 노조인 SMART-TD는 적은 표차로 거부했다. 계약에 합의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들은 오는 12월 9일 파업을 할 수도 있다.
- 반면에 엔지니어 노조인 Brotherhood of Locomotive Engineers and Trainmen는 근로 계약서 비준에 찬성했다.
- 총 12개 노조 중 8개는 계약서에 합의한 반면에 나머지 4개는 반대한 상태다. 현재 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에너지/오일]**NYT: Oil Prices Slide as Investors Worry Energy Demand Is Slowing****유가 하락....투자자들 에너지 수요 둔화 우려 속에**

- 미국의 기준 유가는 금요일 배럴당 약 80달러까지 떨어졌고, 일부 주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3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 많은 나라의 경제 성장둔화와 더불어 석유사용도가 불경기에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석유 거래자들은 수요가 훨씬 더 빨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수출을 줄이고 저장고에 있는 미국 원유가 떨어지고 있다.
- 유가하락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금요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71달러로 전월의 3.87달러보다 하락했다.
-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NYT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무디스 수석 "내년 경기 침체 확률 50%...연준 연착륙할 수도"
- **[한경]** 모간스탠리 "美빅테크 대규모 감원, 시장전체로 확대될 가능성희박"
- **[연합]** 실적 부진 디즈니, CEO 전격 교체...'15년 장수' 밥 아이거 복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Asia Embraces Work from Home But Bosses Say No to Four-Day Week

재택근무 수용하는 아시아 국가들... 재택 근무 입장은 지역마다 달라

-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 기업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사무실과 재택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유연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중국, 일본, 인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2,170명의 기업 총수들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기업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없애려다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유연한 노동을 직원 복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 이는 채용공고사이트인 링크드인(Linkedin)에도 나타났는데, 원격 채용 공고 신청 건수가 2020년 1월 거의 0건이었다가 올해 9월에는 인도가 20%, 호주가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전무이사 겸 부사장 Elisa Mallis은 "계속되는 낮은 실업률로 인해 직원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원격 근무에 대해 20%의 임금 삭감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nflation Tests Corporate Plans to Steer Buyers to Premium Goods

고물가 불구하고, 미 회사들이 고객에 프리미엄 상품 판매 유도

- 고물가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음료 업체인 Molson Coors Beverage 부터 브랜드 미용 건강 용품 회사인 Procter & Gamble에 이르기까지 쇼핑객에게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이 적어도 고소득 쇼핑객들에게는 효과적이라는 것.
- 비싼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효과적인 것에 있어 팬데믹 기간 초기에 집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들이 식당 등 서비스에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회사들은 특히 고소득 쇼핑객들이 좋은 품질의 고가 제품을 계속 구매토록 할 수 있다는 베팅하고 있다.
- 또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싼 품목을 찾고 있지만 외식에 지출하기 보다는 외식 보다 여전히 비용이 낮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럭셔리를 여전히 사는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Inflation forces mom and pop restaurants and big chains to lean

on their unique strengths**인플레 강타에 체인점과 개인 식당 대응효과 달라**

- 인플레이션으로 손님은 줄어들고 비용은 더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 및 개인 음식점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활용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와 같은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더 나은 재료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 그들의 크기와 구매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한 예로 4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Noodles & Company는 최근 2023년 치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계약이 3분기 판매 가격 대비 약 2%의 마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반면 브랜드 없는 개인 식당들은 체인점의 현금과 자원이 부족하지만 속도의 장점이 있다. 핵심재료 중 높은 비용이 소요됐을 경우 해당 메뉴의 가격을 바꾸거나 1인분 사이즈 변경을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CNBC 기사

CNN Business: Taiwan's TSMC to bring its most advanced chip manufacturing to Arizona**대만 TSMC, 애리조나에 최첨단 칩 생산 계획**

-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소재 신공장에서 첨단기술을 갖춘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 이러한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 TSMC는 전 세계 컴퓨터 칩의 약 90%를 차지하며 Apple 및 Qualcomm을 비롯한 기술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 창업자 겸 전 회장인 Morris Chang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뒤 "TSMC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3나노미터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회사는 지난 2020년에 애리조나 첫 제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최소 1백20억달러를 투자기로 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California Sues 3M and DuPont Over PFAS Chemicals**캘리포니아 주, 독성물질 함유 제품 판매로 3M과 Dupont 고소**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인 Rob Bonta는 해당 기업들이 PFAS(Perfluoroalkyl Sulfonate)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암, 발달 장애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십 년 동안 판매했다는 점을 다년간의 조사를 통해 밝혔다.

- 또한 이 소송으로 “독성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벌금과 비용을 해당 기업에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듀폰 측은 PFAS 물질을 제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안전, 건강 및 환경 관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M 대변인 KCarolyn LaViolette도 성명을 통해 “회사는 PFAS가 포함된 제품 생산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왔으며, 자사의 환경 관리 기록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월가 "내년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연착륙 없다"

연말 쇼핑시즌 소비 부진 예상..."미국인들, 선물·기부 모두 줄일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가운데 내년엔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펀드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씨티그룹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유럽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최근 미국 10월 소비자·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고용 지표와 기업 실적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도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지만, 월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